



연변, 물류 우세로 지역경제 발전의 내생동력과 경쟁력 증강

물류가 원활하면 백업이 흥성한다. 물류는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역에 자리한 연변은 동북지역의 중요한 국제교통 거점이다. 연변 주변에는 여러개의 대외통상구가 있고 국가 1류 항공통상구인 조양천 공항이 있어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와 국내 주요 도시와의 통항을 실현할 수 있다. 연변은 또한 '일대일로' 북극 개방의 중요한 창구와 거점 도시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연변에서는 정세를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일련의 혁신 조치를 통해 현대물류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경제 발전의 '경맥'(经脉)을 원활히 하였으며 지역과 교통 우세를 물류 우세로 전환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내생동력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증강시켰다.

11월 22일, 기자는 연길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콜드체인(冷链)물류 건설대상 시공 현장에서 새 공장 건물 이 땅을 차고 일떠서고 현대화한 물류단지가 이미 초기 형태를 갖춘 것을 볼 수 있었다.

"콜드체인 물류는 한쪽은 생산단과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소비단과 연결되어있어 시장 발전의 잠재력과 공간이 거대하다." 콜드체인 물류 건설대상 책임자 장우의 소개에 따르면 이 대상의 총 투자액은 2억 9,000만원이며 총 부지면적은 근 5만 7,000평방미터에 달하는데 현재 연변에서 가장 큰 콜드체인 물류 대상이다. 연변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음식체업, 슈퍼마켓 소매, 식품 및 신선상품 전자상거래 등 업종은 이미 관광소비시장의 주력 군으로 되었으며 연변지역의 전문식품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 훈춘시종합보세구 전경 / 자료사진

가 날따라 증가되고 있다. 대상이 완공되면 연변의 콜드체인 물류에 부대적인 콜드체인 창고 등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동시에 연변항소 등 량질 육류제품 및 연변의 특색 수산물들을 국내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핸드폰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하면 전세계 수많은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다. 다국전자상거래산업은 연변 소비자들 이 전세계의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편리를 줄 뿐만 아니라 연변의 좋은 상품들이 바다 건너 멀리 전세계에 팔리는 데도 편리를 준다.

훈춘시에 자리잡은 동북아시아 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 보세창고에서 훈춘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 물류부 주관 팡보경은 매일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24개 화물창고들에서 보내는 화물을 접수하고 있다. 그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물이 운송된 후 화물 입고, 데이터 검사, 수출 통관 신고, 통상구 출관 등 단계들을 거쳐 화물을 경외에 운송하고 있는데 월평균 화물 출하량이 400톤에서 500톤에 달하며 해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년간 훈춘시는 국내 첫 차이노(菜鸟)대 로씨야 대형 소포전용선, 동북 첫 다국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운수(TIR), 중로 철도 우편물 등 3대 업무를 개통했다. 그중 중로 철도 우편 업무는 우편물과 '9610'업무의 융합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TIR 국제 직통차와 울라지보스포크 공중 항로와의 연결을 추진했다. 또한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화물의 육로, 철도, 항공의 다양한 연합운송 종합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훈춘에서 로씨야 전역으로 보내는 우편물 배송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5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2023년 이래 TIR 국제 직통차가 안정적으로 운송한 화물 가치는 35억 원을 초과한다.

이와 동시에 연길시는 자체의 우세를 발휘하여 로씨야에 대한 육로 운송을 확대하도록 물류기업을 인도하고 연길-울라지보스포크 국제화물 선로를 등록(备案)했으며 한진항 공물류회사와 연결하여 연길공항 다국전자상거래감독관리작업구(9610, 9710), 보세물류중심(B형), 연길공

항 국제화물역, 훈춘통상구를 연결하는 '항공육로 연합운송'모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상품의 연길 물류 수출입 경로를 원활히 했다.

년초부터 연변은 대외무역 선두기업과 산업단지의 집결 및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길, 훈춘 두 곳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다국전자상거래와 온·오프라인 산업 체인의 건설 진척을 다그쳤다. 또 전자상거래 발전에 부응하는 창고배송, 콜드체인 물류산업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쌍방향으로 원활한 전자상거래 물류모식을 대담하게 혁신 발전시켜 인터넷거래, 창고물류와 단말배송이 일체화 경영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였다. 연변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연길공항구 물류산업단지 등 콜드체인 물류 기초시설 건설대상 도합 7개를 추진하였는데 총 투자액이 15억 900만 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이미 2억 3,400만 원의 투자를 완수하였다. 이러한 대상이 건설되면 전 주의 랑동창고 용량 창고 저장 능력이 25만 4,800립방미터로 증가하여 콜드체인 물류의 서비스 수준과 보장능력을 크게 제고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연변은 우수한 자원을 적극 통합하고 구조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일련의 현대화물류단지를 새로 건설하고 일련의 전통물류단지를 개조, 제고하며 시장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물류단지를 통합, 도태시키는 책략을 취하여 물류단지 발전의 질과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다. 현재 전 주적으로 이미 5개의 물류산업 단지가 건설,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성급 물류단지가 2개로 현대물류산업의 왕성한 발전에 튼튼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다.

/ 길림일보

해란강농촌진흥좌담회 룡정에서



11월 27일, 국무원 참사실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인민정부 참사실과 룡정시인민정부에서 주관한 해란강농촌 진흥좌담회가 룡정시에서 소집되었다. 국무원 참사실 당조 서기이며 주임인 고우, 성정부 부성장 광령계가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에 참석했다.

고우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농촌 진흥 전면 추진에 관한 중요한 문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새시대 '3농'사업의 중점과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현언현책(献言献策)사업을 잘해야 한다. 사상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천만 공장'의 경험 계시와 내포된 과학적 방법을 잘 선전, 해석하여 전사회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돌리고 농촌에 관심을 돌리고 농민을 사랑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본직에 밀착하여 역할을 발휘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산업 진흥과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조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광령계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세차례 길림을 시찰하고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려 우리 성의 '3농'사업 발전에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 성당위, 성정부는 시종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국가 식량 안전을 안정적으로 수호하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농촌산업 진흥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량곡과 육우, 인삼 등 특색자원의 우세에 밀착하여 '천억근 량곡'과 '천만마리의 육우'등 견인적이고 상징적인 중대한 공정을 계획, 실시하고 '10대 산업집진'건설을 수단으로 만억급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을 전력으로 구축하여 농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처부를 촉진했다.

이날, 국무원 참사관 및 지방정부 차사 대표, 관련 부문 동지, 관련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은 '지역 우세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고 농촌산업 진흥을 촉진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교류와 연구토론을 전개했다. / 길림일보

12월 6일부터 연길-백성 고속철 직통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연길-백성 직통 고속철이 운행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연길-백성 C1348/7호 열차는 처음으로 두 지역간 고속철 직통을 실현했으며 운행 시간은 원래의 6시간에서 5시간 7분으로 단축되었다. 이 로선의 개통은 길림성 동부와 서부 연선의 많은 도시를 연결하여 연선 주민들의 이동에 큰 편리를 줄 뿐만 아니라 두 지역간 산업업그레이드를 이끌어 연선 관광업의 왕성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열차 운행 시간은 다음과 같다.

C1348호 열차는 연길서역에서 오후 3시 4분에 출발하여 안도서역, 둔화역, 길림역, 룡가역, 장춘역, 송원역을 거쳐 저녁 8시 20분에 백성역에 도착한다.

C1347호 열차는 백성역에서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하여 송원역, 장춘역, 길림역, 둔화역, 안도서역을 거쳐 점심 12시 47분에 연길서역에 도착한다. /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

‘길림오동’ 룡용과 인삼, ‘3무1전’ 브랜드 품종에 선정

최근 국가중약표준화품질평가혁신련맹은 '3무1전'(三无一全) 브랜드 품종 명단을 공시했는데 길림오동공룡 산하 길림오동홍색특업유한책임회사의 룡용과 길림오동약재배배과학기술유한회사의 인삼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3무1전' 량질 약재 표준은 2018년 국가중약표준화품질평가혁신련맹에서 제언했다. 즉 류황 가공을 하지 않았고 누룩곰팡이 오염이 없으며 무공해 및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인증 표준은 매우 엄격하며 생산지역의 진정성, 기원의 정품성, 관리의 규범성, 전 과정 추적 가능, 제품 광질성, 규모 안정성 및 승낙 자원성 7가지 방면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근년대 연변조선족자치주농업농촌국은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직 지도하여 '3무1전' 량질 인삼 등 중약재 재배기지 건설 신청 작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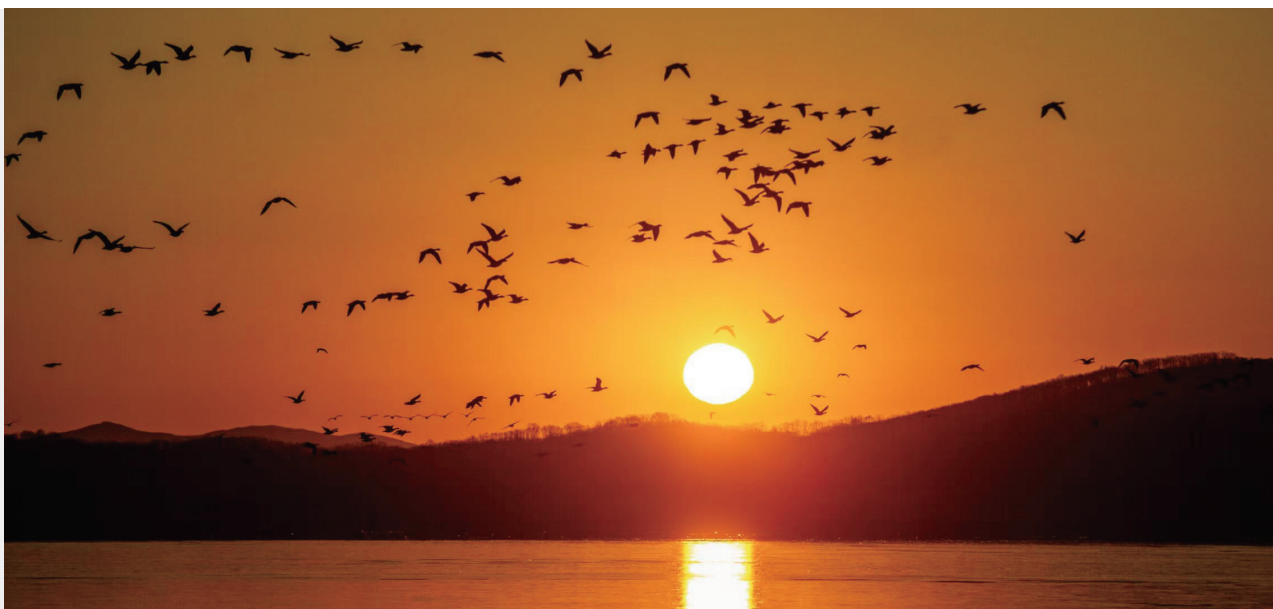
인삼은 길림오동약재배배과학기술유한회사가 줄곧 중점적으로 발전시

키는 정통 약재 품종이다. 이 회사는 장백산 약재 자원 우세에 밀착하여 인삼, 음양곽 등 약재를 위주로 한 생식 질자원은행, 유전자은행, 데이터베이스, 표준은행을 건립하여 원천적으로 중약재 정통 품질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품질협회 제1차 '품질인삼' 인증을 받았다. 이번 '3무1전' 브랜드 품종에 입선된 것은 이 회사가 량질의 인삼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길림오동홍색특업유한책임회사는 전문적으로 꽃사슴 사육에 종사한다. 이 회사가 현재 사육하는 꽃사슴은 오동그룹이 2002년 선택 육종한 '오동꽃사슴' 품종인데 이 품종은 2002년도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꽃사슴 품종이 되었다. 이 회사는 2021년 '길림성 제1진 정통약재과학기술 시범기지' 칭호를 수여받았고 2023년 '길림성꽃사슴표준사육장', '길림성꽃사슴유전자원보호장'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3무1전' 브랜드 품종에 입선된 것은 '3무1전' 첫 동물약 원천이기도 하다. / 인민넷

경신습지의 해돋이와 철새

해마다 11월이면 훈춘시의 경신습지는 수십만마리의 기러기와 각종 희귀한 철새들을 맞이하여 매혹적인 철새의 천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경신습지에서 해돋이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했다. / 길림일보



로씨야 관광기업 대표단 연변에서 겨울철 관광 로선 답사

11월 28일, 연변-울라지보스포크 항공여행 추천소개회가 연길에서 소집된 가운데 로씨야 빈해변연구에서 온 11개 관광기업 대표, 연길공항 및 연변내 9개 관광기업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항공+관광'의 연합운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많은 로씨야 관광객의 입경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관광국은 항공여행 자원 통합을 진행하고 겨울철 정품관광 로선을 개발하여 로씨야에서의 연변의 지명도를 한층 더 제고시킴으로써 더욱 많은 로씨야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고 명절과 온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주문화 라디오텔레비전방송관광국은 중국남방항공 길림분회사와 함께 연합으로 로씨야 관광기업 대표단을 연변에 초청하여 겨울철 관광 로선을 답사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떠나는 빙설의 약속·온전 연변 즐기기'를 주제로 로씨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에 따라 특색 있는 정품 코스를 설계하고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로씨야 관광기업 대표들이 연변 문화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 남방항공 길림분회사 연길기지 관련 책임자가 연길-울라지보스포크 항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교류상담 부분에서 중로 쌍방의 관광기업 대표들은 깊이있게 토론하고 쌍방의 친선을 증진하는 동시에 실무 협력을 심화하여 일련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관광국 관계자는 연변과 로씨야 극동지역에는 한랭기후와 관련된 민속, 고대문 화유적지 등 문화 자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이 각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공유를 실현하고 관광, 예술, 체육, 연학 등 협력 분야를 한층 더 넓히며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로씨야 관광기업 대표들이 이번 답사를 계기로 연변을 미래 발전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고 귀국후 연

변의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소개하고 선전하여 더욱 많은 로씨야 관광객들이 연변을 료해하고 연변에 관심을 돌리며 연변에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씨야 관광기업 대표는 "연변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깊은 문화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 로씨야 관광객들은 중국 문화, 특히 연변의 독특한 민족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남방항공이라는 항로를 통해 언제든지 아름다운 연변에 놀러 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면서 연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여 더 많은 로씨야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길림일보